

내가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은 미디어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된 시각 문화 속에서 제도화하거나 언어화하기 어려운 것을 한꺼번에 포섭하려는 체계들이다. 이러한 것들에는 관습적이고 인공적인 거주 양식, 정치적으로 상징화된 자연 풍경, 소중한 정서적 반응을 규정하는 언어 등이 있다. 이것들은 사랑이나 고래처럼 한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대상에 아우라를 덧씌우고 분장한다. 달혀있거나 단정적인 체계를 마주했을 때의 거부감이나 슬픈 감정은 내가 다양한 사회 문화 현상의 배경을 수사하게 한다.

나는 내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장소부터, 매체를 통해서만 보았던 풍경까지 배경이 되는 장소를 답사하며 이미지를 채집한다. 이는 내 몸을 이용하여 세상의 단위를 더듬어 만져보려는 행위이며, 관념적으로 알거나 믿는 것을 의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후에는 장소에 얹힌 다양한 사람의 사적 기억을 전해듣고 기록한다. 실마리와 실마리를 연결하면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사회 속의 역동적 기록물을 함께 찾아 한곳에 모은다.

다채로운 무늬를 가진 기록물을 하나의 지면으로 엮어내기 위해, 나는 수집한 것들을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편집하는 방식을 택한다. 새로운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물과 수집물의 관계를 바꾸어 몽타주한 뒤 엮어낸다. 수집된 이미지를 시간을 가진 하나의 시퀀스로 바꾸는 이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 과거와 현재의 가치, 실재와 허구가 교차한다. 이처럼 이미지와 이미지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일은 분장 되거나 덧씌워진 체계를 벗겨내며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는 방법이다. 나의 작업은 이를 통해 “무엇이 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가치를 변화시키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